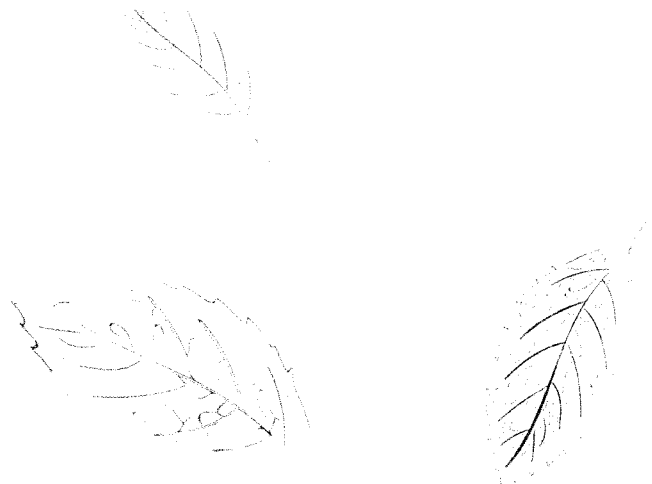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은 9월



직지축제 - 키페스 -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 인쇄축제까지 다양

올해 9월은 다른 해와는 달리 더욱 풍성한 인쇄·출판 관련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그 첫 축제는 2010청주직지축제다.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청주직지축제를 시작으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2010)가 열리며, 9월 14일에는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이, 마지막으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열린다.

올 가을엔 2010청주직지축제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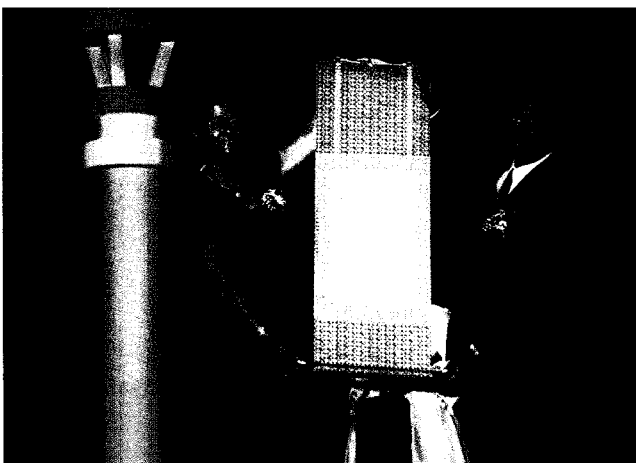
9월 3일부터 6일까지 시민참여형 축제로 개최

2010청주직지축제(위원장 정정순)가 청주시의 주최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청주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2003년도에 직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주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시작되어 올해로 6번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청주직지축제는 직지의 창조정신이 살아 숨쉬는 주제가 있는 축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습하는 축제, 청주의 고유성을 통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특성화된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과 폐막식, 각종 공연을 실시하고 전시 관람과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학술세미나와 음악회 등 연계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직지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중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현재는 고인쇄박물관 직지사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직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실행시킬 예정이다.

JIKJI
 CHEONGJU JIKJI FESTIVAL 2010
공감 共感
 CHEONGJU JIKJI FESTIVAL 2010
2010 청주직지축제
 장소 | 청주예술의전당 · 고인쇄박물관 일원
 9. 3(금) - 9. 6(월)
 주최 | 청주시 · 주관 | 청주시직지기념행사추진위원회

청주직지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 5년의 축제 진행에서 쌓인 노하우를 모두 사용하여 청주시민이 마음껏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것”이라며 “시



민들이 9월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게 다양하고 알찬 축제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직지가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2003년부터 청주직지축제는 해마다 진행해오다 2006년부터는 격년제로 열고 있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디지털북쇼

홍대 거리에서 펼쳐지는 책 축제

◎ 와우북페스티벌

제6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위원장 이채관)이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책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슬로건아래 홍익대 주차장거리와 갤러리, 북카페 등에서 개최된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책을 통해 매년 폭 넓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3회부터는 찾고 있는 연인원이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축제 슬로건은 '책꽃이 피었습니다'다. 슬로건은 아날로그 '책'이 '문화예술'을 만나 다채로운 방식으로 부상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책으로 웃음꽃이 핀다'는 이미지가 축제 거리마다 환상적인 축제, 놀이처럼 즐겨 책문화예술축제로 결실을 맺는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9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 동안은 축제의 사전행사 기간으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작가 '이상'을 조명하는 특별행사를 비롯해 와우북 판타스틱 서재 등 다채로운 책문화 행사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공간 위주의 사전행사가 시작되면, 10일부터는 축제의 꽃인 '거리로 나온 책' 행사가 홍대주차장거리를 책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축제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9월 10일 홍대주차장거리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에 참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개막무대는 올해 축제의 주 주제를 반영해, 한편의 시를 읽어 내려가는 듯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한 출연진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더 증폭시킨다. 더불어 '와우북 상상만찬'에서는 아트 퍼포먼스, 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홍대 구석구석에서 진행된다.



◎ Digital Book Show

'책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전자출판협회>의 <Digital Book Show>를 결합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복합과 통섭'의 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와우북페스티벌 관계자는 "와우북페스티벌은 책 읽기 문화를 확산시켜 책을 통한 지적적이고 자유로운 시민독서문화 발전에 기여, 저자와 출판사, 일반 독자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롭고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창의롭고 실험적인 책 문화를 보급하고 독서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책 문화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아날로그 시티즌이라는 주제로 대중강연, 낭독, 오프닝 공연 등이 열린다. 특별행사 <이상한 책읽기>에는

작가 '이상' 탄생 10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제비다방토크, 시각시전,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이상 수필, 소설<날개> 서평전이 열린다.

또 저자가 들려주는 유쾌한 책 이야기인 '와우북 판타스틱 서재'는 와우북 콜로퀴움,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 낭독의 밤, 강연 등이, '와우북 상상만찬'에는 책과 예술가의 만남으로 와우북 상상만찬 일러스트 전시, 사진전, 전시 & 퍼포먼스 등이, '거리로 나온 책'에는 홍대 거리를 뒤덮는 책들의 축제로 포럼, 거리도서전, 어린이 책 놀이터, 와우책시장, 사랑의 책꽃이 등이 열린다. Digital Book Show에서는 전자책과 관련된 다양한 전자책전용단말기 소개에서부터 다국어 전자책, 오디오북 전시 등이 열린다.

국제인쇄산업전시회, 9월 8일부터 4일간 고양 킨텍스서

스크린, HP, 캐논, GMP 등 대형 인쇄기기공급업체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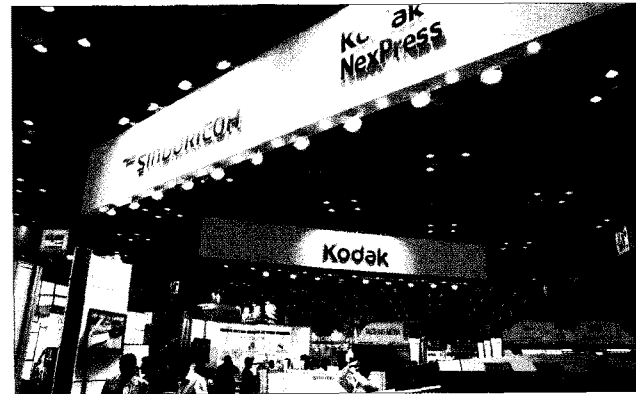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주)한국이엔엑스(대표 이사 김충진)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쇄 관련 전시회인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2010)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엔엑스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KOTRA,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IT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인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쇄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블루오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는 스크린, HP, 캐논, GMP 등 대형업체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디지털인쇄 시스템 Zone, 인쇄 및 프리프레스 Zone, 라벨 및 스크린기자재 Zone, 제본, 지가공 및 포장기자재 Zone으로 구성되어 한층 더 다양해진 인쇄산업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KIPES 2010에 인쇄문화관 설치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안병무)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알리고 현대의 인쇄기술을 알리기 위해 'KIPES 2010'에 인쇄문화관을 설치 운영한다.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 인쇄문화관을 마련해 직지 영인본



(하권), 복원본(상권)과 직지 금속활자 제작 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 발달에 끼친 영향, 과학 발달사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자가 현지에 상주하며 관람 안내와 직지 금속활자 인쇄체험을 실시해 관람자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인쇄물을 전시할 방침이다.

◎ 한·중·일 인쇄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포럼도 열려
 KIPES 2010 기간인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일산 킨텍스 전시장 2층 205호 세미나실에서 '한·중·일 인쇄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의 '한·중·일 인쇄문화산업의 비전'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제1강연은 모치다 사토시 고모리코퍼레이션 전무이사가 '일본의 인쇄산업 현황과 한·중·일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제2강연은 왕더마오 중국인쇄기자재협회 부회장이 '중국의 인쇄산업 현황과 한·중·일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제3강연은 이기성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이 '한중일 공동 개발용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2010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9월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서

2010 인쇄문화의날 기념식이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공동 주최로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은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 인쇄업계 현황보고, 정부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시상, 협회장 표창,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는 경영부문에 류정열 유신당씨앤씨(주) 대표이사, 기술부문에 이원재 동양인크 기술연구소 소장, 진흥부문에 전익성 다이나폰스크린코리아(주) 대표이사, 특별부문에 이학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제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인쇄센터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대한인쇄연구소, 청주고인쇄박물관, 동국대학교가 후원한 '제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인쇄!, 세상을 여는 창'이란 주제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다.

서울대상 시상식은 9월 14일 오후 2시에 서울 광장 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펼쳐지며, 14일부터 15일까지는 △우표, 엽서, 화폐 전시 △잡지 변천사 전시 등 인쇄관련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함께 △스탬프 엽서쓰기 체험 △디지털인쇄 체험 △고인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



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인쇄물 전시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및 의류 제품 전시 △친환경 실천 녹색리본 달기(환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메시지 리본) 등 친환경 녹색 실천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중 특히 서울인쇄대상은 우수한 인쇄물을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국내 인쇄기술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인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인쇄 전시회를 통하여 인쇄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우수한 인쇄물과 다양한 인쇄물을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인쇄업계의 총체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